

도시동향 City Trend



**축제의 도시
멜번 (Melbourne)**
 국토의 3/4이상이 사
 막이며 자연의 야생적
 모습을 그대로 간직
 한..

IDI 소식 IDI News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위한 협..
 인천지역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와 일자리 창출..

인천지표 Incheon Index



**인천광역시소재 사회
복지시설 및 종사자..**
 2012년 말 현재 인천
 광역시에 소재한 사회
 복지시설 및 종사자
 의..

IDI 단상 IDI Platform



**자연경관과 인공경관
의 하모니, 그리스..**
 이문음로 광고 촬영
 지로 국내에 알려진
 그리스의 화산섬..

칼럼 Column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지역단위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

IDI 연구 IDI Research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지난
 이명박정부 때부터 제기된 국정과제 중 하나
 나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쯔인천 ZoomINcheon



역사의 내음을 지닌 고소한 거리,
 '인천수인곡물시장'
 갖 북은 고소한 내음이 진동하는 전국 유일의
 곡물시장인 '수인곡물시장'은 중구 신흥동
 28-2번지에 위치한다. 40~50여 가지의 각종
 곡..

인터뷰 Interview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현
실과 바람**
 아뜨리에 85호에서는 인천사회복지보건연
 대 신진영 사무국장을 만나 인천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수준은 어느 정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조 민 호 _ 인천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위원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이직률이 높다. 잦은 이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열악한 처우는 그들을 여느 직장인들보다 쉽게 소진 상태로 만든다. 경력이 있고 유능한 사회복지 인력을 직접적인 실천 현장에서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매년 증가하는 복지예산에 비해 낮은 복지 체감도는 서비스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따라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관심과 노력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2011년 3월 11일 국회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처우개선법')」을 제정하였다. 처우개선법이 법률로서 처우개선을 명시하였다는 데에서 전보다 진일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처우개선법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법률로 명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했다는 이유로 처우개선에 대한 책임을 위탁 운영체에 떠넘겨 왔고, 법정수당 미지급에 대한 책임도 위탁 운영체에 있음을 주장하여 왔으나 처우개선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하여야 함으로 명시한 것이다.

국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되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내실 있는 대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오히려 지자체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인천시의회도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월1일 통과시켰다. 조례가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반영을 통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전히 실효성이 없는 조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다. 인천시도 재정난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소극적이다.

인천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천계획을 발표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매년 예산확보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우개선 계획에 따른 로드맵의 제시가 필요하다. 올해 인천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을 통해 인건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도 인건비 실태조사를 결과를 통해 나타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실천 계획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의 95%가 적용되는 처우개선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1단계 목표로 사회복지사 처우를 공무원 95% 수준을 달성하고 2015년 이후에는 제2단계 목표를 세워 장기적으로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울시는 처우 향상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향상을 위해 2012년 시설별로 지급되던 보수지급기준을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단일화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한 TF를 구성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수준에 대한 제시 및 합의가 이루어질 때 일선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 및 근무 만족도를 높임과 더불어 우수자원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게 함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성을 향상시킴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받는 인천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복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자선과 봉사를 강조하는 현장에 있었으나, 현재는 복지수요가 전문화되고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종전의 단순 봉사의 개념으로 복지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시 전문 직업적 개념으로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핵심 인력인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현실과 바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국장 신진영

아프리에 85호에서는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신진영 사무국장을 만나 인천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듣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왜 필요하며,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는가 및 처우 개선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방법 등에 관해 알아보았다.

Q.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왜 필요한가요?

A :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함께 최근 10년 동안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현대화되고 후기 산업 사회로 가면서 사회적 위험이 늘어난 반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공동체 기능은 약화된 상황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의 필요성이나 양적 확대, 사회복지 시행의 책임성 등은 모두가 관심을 갖고서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정작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해주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제공되는 부분이다 보니, 종사자들의 처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지난 5년 동안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실제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은 1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현장으로 나갈 것을 결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졸업을 앞둔 사회복지관련 대학생들을 만나보면 보수가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기로 마음 먹기가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복지의 가치와 사회복지사로서의 의무만 생각하고 현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결국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수준이 사회적으로 너무 낮아서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는 ‘부부가 사회복지사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다’는 말만 봐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수준에 놓여있는지를 빗대어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겠지요.

Q. 인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수준은 타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A : 전국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형태라고 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과 비교해 봤을 때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 평균 임금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인천시에서는 광역시 차원에서는 나은 편에 속한다고 하지만, 인천은 수도권 지역이므로 서울이나 경기도와 비교해 볼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고 있으며, 그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이 서울이나 경기도 쪽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향상돼야 우수한 인력들이 인천시민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A : 일단은 통상적인 임금 가이드라인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라도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는 처우수준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95% 정도 수준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당의 문제에 관해서도 각

기관별로 기준 없이 남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나가면서 가이드라인을 맞춰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 다른 부분은 복리후생에 관한 것인데, 현장간담회를 진행했을 때 이용시설 같은 경우, 점심 시간이 없는 종사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점심시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거나 고된 일상 중에 잠시 쉴 휴게 시설 하나도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들도 논의되어야 하며, 복지포인트 제도나 교육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권적인 문제를 들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속에도 폭언이나 폭행에 관한 경험들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일을 그만두는 데 큰 요인이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어떤 조치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폭행·폭언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용자 교육을 마련하고, 사건 발생 시 처리 및 지원 등을 해주었으면 하는 요구들이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Q.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의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A : 인천시를 상대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사회복지정책이 일반적으로 국가 정책이다 보니 시에 얘기하면 국가 문제로, 국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면 지자체 문제로, 지자체는 법인의 역할도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를 하는 경우가 큰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문제는 모든 지자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해결될 필요가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재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공공재원의 낭비를 없애고,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올릴 수 있으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바꾸려고 하면 어디를 대상으로 바꿀 것이냐를 알고 요구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너무나 애매하기만 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장기적으로 논의하고 현장 종사자들과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지켜나가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천시도 각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힘을 합해 바꿔보려는 의지를 동반했으면 합니다. 그 노력의 시작이 2009년에 출범한 “인천시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위원회”인데 다른 어떤 지역에도 없는 훌륭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록 뼈저거리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의 단결도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지자체의 인식의 문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의 활성화 문제,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인천시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와 공익 대표, 이렇게 삼자간의 대화채널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대담:이용갑(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 기록·사진:장순지(정책연구실 연구기획팀)

역사의 내음을 지닌 고소한 거리, 인천수인곡물시장

하 설 회 _ 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주임

갓 볶은 고소한 참깨 내음이 진동하는 전국 유일의 곡물시장인 '수인곡물시장'은 중구 신흥동 28-2번지에 위치한다. 40~50여 가지의 각종 곡물과 매콤한 고춧가루 그리고 유난히 많은 참기름집들이 정겹게 손님을 반긴다.

다양한 곡물을 판매하는 가게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참기름 집들
	

시장 골목길의 고소함에 취해 한참을 걷다보면 이제는 녹이 쓴 철도길이 담고 있는 우리네 역사의 내음을 느낄 수 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수인곡물시장 근처 옛 수인선 철도길	
	

일제강점기 경기만의 소래, 남동, 군자 등의 염전지대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일본으로 수송하기 위해 1937년 8월에 수인선이 개통되었고, 천일염뿐만 아니라 대동아전쟁에 필요한 군량미를 확보하여 인천항을 통해 쌀을 공출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인천상공회의소 90년 史」에 의하면 '인천항은 시중 도처에 미국 더미가 치쌓이게 되고, 시가 변두리에는 온통 정미소가 널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며 그 당시 인천을 소개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인천항에 야적된 대일 반출미	일제강점기 개항 후 인천의 재래곡물시장
	



해방이후 1948년 수인선 종착역의 명칭이 인천항역에서 수인역으로 바뀌고, 역 근처에 농협 공판장이 생기면서 소래나 남동, 시흥 등지에서 수확한 곡물을 팔아 보기 위해 보따리를 매고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곡물시장이 형성되었다. 초기 간판도 없이 노점형태로 운영되던 곡물시장은 점점 소비자들의 입 소문을 타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이르러 곡물가게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여 지금의 수인곡물시장의 형태를 이루었고, 1980년대 중반에는 점포수가 80여 곳에 이를 만큼 번창하였다.

1960년대 수인곡물시장 전경



수인선은 1973년 7월 인천항만 확장 건설로 인해 5.1km가 단축되어 송도와 수원 구간(46.9km)만 운행하다 경제성이 악화되어 결국 1995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폐쇄되었고 더불어 농협공판장이 떠나면서 수인곡물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었다. 그 후 주변에 대형마트들이 생기고 중구가 황도심이 되면서 인구수가 감소하여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창고로 쓰이는 가게들이 점점 늘어나고 현재는 30여 곳의 점포들만 남아 옛 수인곡물시장의 명성을 쓸쓸하게 유지하고 있다.

수인곡물시장 입구



한산한 모습의 수인곡물시장 전경



수인곡물시장은 철도청 소유의 부지에 무허가로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재래시장으로서의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인천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수인곡물시장을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이제 다시 달리기 시작한 수인선처럼 우리도 과거의 고소함이 진동하는 수인곡물시장의 거리를 지금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이 용 갑 _ 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지난 이명박정부 때부터 제기된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지위·호봉간 격차, 공무원 보수수준과 비교 등을 통해 2015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수준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보수수준의 95%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따라 2012년 5월 경기도, 2012년 9월에는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오산시 등 지자체들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차례로 제정하였다.

2012년 1월 1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사회복지계의 전국적으로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초 인천의 사회복지계도 인천광역시청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노력을 시작하였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일괄적인 1% 인상; 둘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도별 종합 계획의 수립 이행 및 만·관 협의체 구성; 셋째, 이용시설/생활시설로 구분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의 일원화.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OOOO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OOOO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안)”,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회의 조사 자료” 및 “인천광역시청의 8개 광역지자체 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별·광역시 및 경기도와 비교한 인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종류별/지자체별 상대적 처우수준은 알 수 있었지만, 절대적 처우수준은 알 수 없었다. 더구나, 비교대상 지자체들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수준은 지자체의 자체 기준에 따르며, 기본급의 지급 횟수와 수당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지자체마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청의 8개 광역지자체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면, 인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상대적 처우수준은 전반적으로 서울 다음의 2순위로 현재는 대체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설종류별로는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의 처우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고,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처우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모든 시설종류에서 직급별로 처우수준의 하후상박(下厚上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2년 3월 국회에서의 법률 제정이후 각 지자체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인천광역시의 조례도 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지위·호봉간 격차, 공무원 보수수준과 비교 등을 통해 2015년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 보수수준의 95%로 목표를 제시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목표 및 서울·부산·경기도의 조례 제정과 정책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보건복지부 및 서울·부산·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시작된다면,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수준은 다른 지자체의 조례제정 및 보건복지부의 정책목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향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차원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개선사항’이다. 인천광역시의 재정안전화 문제 및 보건복지부·서울·부산·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고려한다면, 2018년까지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평균임금을 공무원 임금의 95% 수준으로, 2020년까지는 각 직위/직급의 임금을 공무원 임금의 95%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생활시설의 임금수준을 점차적으로 이용시설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시작년도를 2014년으로 설정한 후 이를 위한 2013년도에 실시되어야 하는 과제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인천시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모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이용시설과 다른 생활시설에 지급되는 수당의 현실화, 2013년에는 2010~2012년에 동결되었던 기본급의 0.1~1.0% 인상.

본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2013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계가 경험한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중 기본급을 1% 인상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첫 발을 움직였다. 둘째, 인천광역시의회는 2013년 2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인천발전연구원은 2013년 3월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 및 개선 연구』를 수탁 받아 2013년 9월까지 인천광역시에 적합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방안을 연구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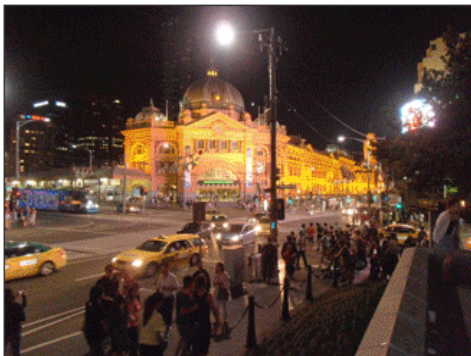
축제의 도시 멜번 (Melbourne)

이 석 환 _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대리

국토의 3/4이상이 사막이며 자연의 야생적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나라,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 호주, 그곳에 축제의 도시로 불리는 곳이 있다. 우리들에게도 익숙한 그 도시의 이름은 멜번(Melbourne)이다. 해안가를 따라 도시가 발달한 호주는 도시마다 그 특색과 고유의 행사 및 축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호주의 문화 중심지로도 불리우는 멜번은 다양한 대규모 축제와 행사가 열리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여름이 11월부터 2월까지인 멜번은 10월 호주 모터사이클 그랑프리, 11월 국제예술축제, 스프링 레이싱 카니발, 멜번 축제 등이 열리고, 11월에는 멜버른 컵 카니발,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축제, 1월에는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2월 멜번 여름 보트 쇼, 3월에는 푸드&와인 축제, 로레알 패션 페스티벌, 뭉바 워터페스트, 포물러 원 호주 그랑프리, 국제 코미디 축제, 4월에는 국제 화훼쇼, 5월에는 국제 마라톤 등 연중 내내 다양한 행사와 축제로 가득하다.

플린더스 거리 기차역(Flinders Street Station)



멜번의 명물 '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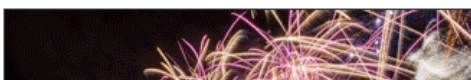
그 축제의 즐거움과 낭만을 만끽하기 위해 세계에서 다양한 국적과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백팩커(backpacker)라 불리는 여행객들이다. 축제기간이 되면 멜번 시내 뿐 만 아니라 외곽 지역에 있는 호텔까지 백팩커들로 넘치고 어디를 가나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거리는 붐비게 된다.

대표적인 축제 몇 가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뭉바 축제(Moomba water festival)는 호주 최대의 무료 시민 축제로 매년 3월 노동절 전후로 열린다. 1955년에 시작된 이 축제의 이름인 뭉바(Moomba)는 호주 원주민 언어로 '함께 모여 놀자(Let's get together and have fun!)'라는 뜻이다. 처음에는 지역 주민들이 단순히 즐기 위한 소규모의 행사였으나 현재는 매년 15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축제는 '페더레이션 스퀘어(Federation Square)'라는 광장과 야라강(Yarra river)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수상스키 대회와 요트 경기와 더불어 강 주변 공원에서 스케이트보드와 자전거 묘기(BMX) 대회 등 각종 스포츠 행사가 이루어지고 아이들의 놀이공원도 마련된다. 또한 국내외 예술가들이 펼치는 공연과 행사가 도시 곳곳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재치 넘치는 새인간 콘테스트 '버드맨 랠리(Birdman Rally)'는 각자 준비해온 새 모양의 옷과 장비를 가지고 오직 바람의 힘만으로 가장 멀리 나는 자가이기는 대회로 뭉바 축제의 유명 행사다. 우스꽝스러운 새차림으로 행글라이더나 비행기모형, 손잡이 날개 등을 가지고 한발자국이라도 더 멀리 날고자 발버둥 치던 참여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이 난다.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멜번 시내를 가로지르는 뭉바 퍼레이드가 있고 다양한 공연팀의 환상적인 무대와 더불어 불꽃놀이를 대막으로 축제는 마무리된다.

뭉바 페스티벌 불꽃놀이



뭉바 페스티벌 퍼레이드





<http://www.thatsmelbourne.com.au>



<http://www.thatsmelbourne.com.au>

몸마 축제 버드맨 랠리(Birdman Rally)



출처: <http://birdman2013.tumblr.com/>

세계에서 가장 긴 점심 이벤트



출처: <http://www.melbournefoodandwine.com.au>

두 번째로 소개할 축제는 1993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멜번 푸드&와인 축제(Melbourne Food&Wine Festival)이다. 매년 약 30만명의 와인 애호가와 식도락가가 찾는 이 축제는 해마다 새롭게 정해지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유명한 요리사들이 다양한 요리를 선보인다. 2012년의 주제는 '불(fire)'이었다. 알렉산드리아 공원(Alexandra Park)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점심 이벤트(world's longest lunch)'를 시작으로 프라란 마켓(Prahran Market)에서 열리는 왕립 전시관의 갈라 디너, 랑함 마스터 클래스(Langham Master Class) 등 약 100여 가지가 넘는 이벤트가 약 2주간의 축제기간 동안 진행된다.

또한 멜번에는 유명한 관광지로 퀸 빅토리아 마켓(Queen Victoria Market)을 빼 놓을 수가 없는데 시장에 들어서면 다양한 과일, 야채, 고기, 생선에서부터 지역특산물, 잡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백팩커들에게도 사랑받고 있다.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축제기간이 되면 이곳 또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다.

색다른 맛과 이국적인 축제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멜번은 국제적이며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할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발연-중부고용노동청-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위한 협약서 조인식 개최

인천지역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았다.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과 중부고용노동청(청장 하미용), 한국은행 인천본부(본부장 서영식)은 지난 13일 오전, 남동구의 한 식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인천시 등 17개 기관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역협력체(중부고용노동청 주관)'에 한은 인천본부와 인발연이 본격 참여하게 됐다.

한편 인천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역협의체를 올해 2월부터 중부고용노동청 주관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다.

하미용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지역 경제 연구·조사·분석에 강점이 있는 한은 인천본부와 인발연의 지역협의체 참여가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도바이오메디파크-셀트리온 현안지역 현장시찰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13일, 일본총합연구소와의 공동연구과제 '고베의료산업도시와 관서광역바이오 클러스터가 송도바이오메디파크의 성장전략에 주는 함의'와 관련, 연구 대상지인 송도바이오메디파크에 대한 현안지역 시찰에 나섰다.

송도바이오메디파크는 송도국제도시 내 109만여㎡에 2020년까지 미래기술을 선도해 세계 3위 수준의 의료바이오 허브 도약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 바이오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첫 입주기업 셀트리온을 대상으로 현장답사와 간담회를 통해 사례조사를 실시한 것. 이번 시찰을 통해 연구원 구성원들에게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송도바이오메디파크의 성장전략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발연-대련순환산업경제구역 관리위원회 한·중 순환경제협력에 관한 비망록 체결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과 대련순환산업경제구역 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인천광역시청 행정부시장 집무실에서 비망록을 체결했다.

한중일 순환경제시범기지 건설은 2009년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며 2012년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순환 경제시범기지 건설의 중요성을 천명한바 있다. 한중일 순환경제시범기지 건설은 한중일간 포괄적 협력을 위한 세부 실천 방안이자 동북아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핵심 내용이다.

이번 비망록 체결로 인해 우리 연구원과 대련 순환산업경제구역 관리위원회는 순환경제,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추진 하고 정책적인 협력, 학술교류 등을 진행하여 한중일 순환경제시범기지 건설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인천시 행정부시장 및 관련공무원과 우리 연구원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관련 연구자, 대련시 상무부시장 및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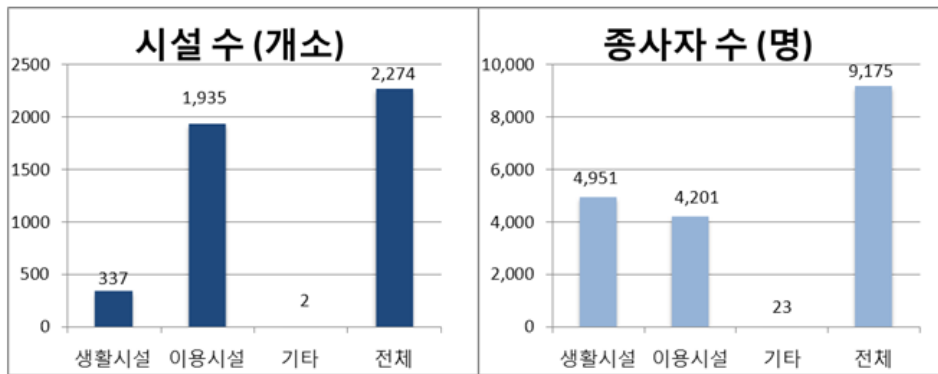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소재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최 동 국 _ 도시기반연구부 초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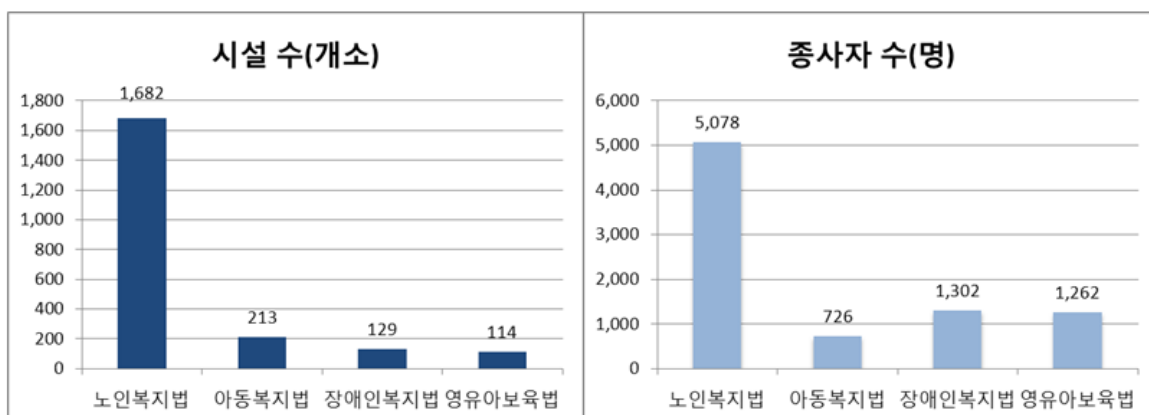
1. 인천 사회복지시설 현황

- 2012년 말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은 총 2,274개소이며, 종사자는 9,175명이다.
- 이 중 생활시설은 전체 시설의 14.8%인 337개소에 종사자는 전체의 54.0%인 4,951명이 근무하며, 이용시설은 전체 시설의 14.8%인 85.1인 1,935개소에 종사자의 45.8%인 4,201명이 근무한다. 그 외의 2개소 시설에 23명이 종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 2012년 말 현재

-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인복지법과 관련된 시설이 1,682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아동복지법 관련 시설이 213개소, 장애인 복지법 관련 시설이 129개소, 영유아보육법 관련 시설이 114개소이다. 노인, 아동, 장애인 및 유아에 관한 사회복지시설이 전체 시설의 94.0%를 차지하고 있다.
- 종사자 수는 노인복지법 관련 시설이 5,07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장애인복지법 관련 시설의 1,302명, 영유아보육법 관련 시설의 1,262명, 아동 복지법 관련 시설이 726명 순서이다. 이와 같이 노인, 아동, 장애인 및 유아에 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91.2%를 차지한다.
- 전통적인 사회보장 대상인 노인, 장애인, 아동과 관련된 부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복지와 관련된 부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률에 따른 주요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 2012년 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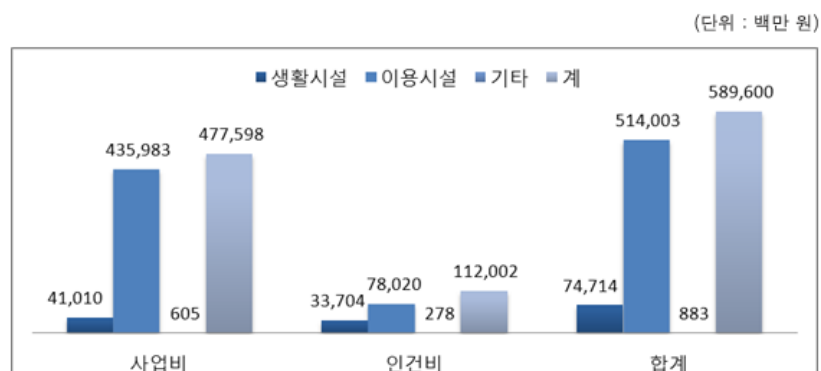
서울 및 6대 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보유 현황 (2012기분)

서울	시설 수(개소)	종사자 수(명)
사회복지사업법	23	320
노인복지법	1,682	5,078
아동복지법	213	726
장애인복지법	129	1,302
정신보건법	24	14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2	76
영유아보육법	114	1,26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2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	32
한부모가족지원법	10	48
다문화가족지원법	9	41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26	27
입양특례법	3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13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비원에 관한 법률	8	61
전체	2,274	9,175

출처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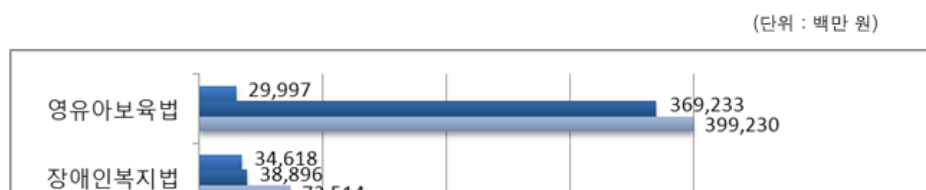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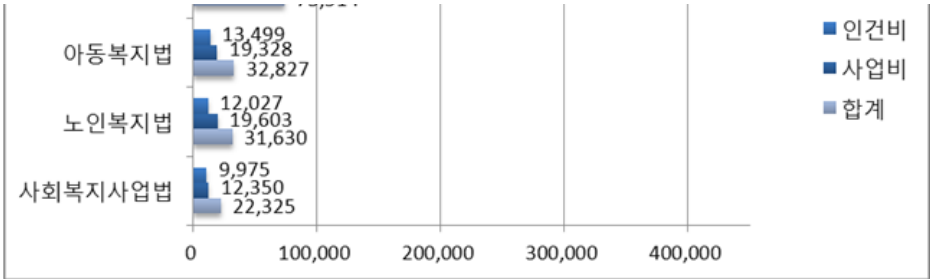
- 2012년 인천광역시가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한 보조금은 총 589,600백만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전체 보조금의 81.0%인 477,598백만원이며, 나머지 29.0%인 112,602백만원은 인건비이다.
- 337개소의 생활시설에 74,714백만원(사업비 41,010백만원, 인건비 33,704백만원), 1,935개소의 이용시설 514,003백만원 (사업비 435,983백만원, 인건비 78,020백만원), 기타 시설에 883백만원(사업비 605백만원, 인건비 278백만원)을 지급하였다.



관련 법률에 따른 주요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 2012년 말 현재

-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시설에 대한 지원이 전체의 67.7%인 399,230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시설에 대한 지원이 12.5%인 73,514백만원,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시설에 대한 지원이 5.6%인 32,827백만원,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시설에 대한 지원이 5.4%인 31,630백만원,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시설에 대한 지원이 3.8%인 22,325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5개 법률에 관련된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전체 보조금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 인천시의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부문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지만, 인천시는 전체 보조금의 약 68%를 차지한 영유아보육 관련 부문에 가장 많은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지원현황, 2012년 말 현재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하모니 그리스 산토리니(Santorini)

김 영 은 _ 도시기반연구부 초빙연구원

이온음료 광고 촬영지로 국내에 알려진 그리스의 화산섬, 산토리니. 광고뿐 아니라 산토리니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한 여러 영화가 개봉하면서 국내에서도 고급 휴양지로, 특히 신혼여행지로 인기를 얻게 되었다. 필자도 작년 10월 신혼여행 차 산토리니를 찾게 되었고 왕복 34시간의 비행이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벅찬 감동을 받고 돌아왔다.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Nikos Kazantzakis)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 이런 구절이 있다. “죽기 전에 에게해를 여행할 행운을 누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산토리니는 크레타섬, 미코노스섬 등 에게해에 떠있는 수많은 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관광지로 특화되어 있는 섬이다. 총면적은 73km로 강화도 면적의 1/4 정도이며, 연중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로 11~3월을 제외하고는 해변에서 항상 수영을 즐길 수 있는 날씨다. 따뜻한 햇살과 지중해에서 불어 온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자란 포도와 올리브가 대표적인 특산품이다.



〈이아(Oia)마을 야간 전경〉



〈미로 같은 마을 내부〉



〈다양한 소재로 디자인된 보도〉

‘산토리니’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이미지는 절벽에 지어진 새하얀 테라스하우스 마을이다. 테라스하우스는 아랫집의 지붕이 윗집의 앞마당이 되는 구조로 경사지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건물을 짓기에 적합한 건축 양식이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자리잡은 산토리니의 이아(Oia), 피라(Fira) 마을에는 수많은 호텔, 레스토랑, 박물관, 기념품상점들이 상하좌우 겹쳐져 하나의 클러스터(cluster)를 이루고 있다. 언뜻 보면 미로처럼 복잡해 보이지만 직접 걸어보면 멀리까지 시야를 확보해주는 얇은 담장과 잘 계획된 공공가로 덕분에 길을 쉽게 잃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다. 시원하게 트인 바다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섬세하게 디자인된 마을 구석구석을 걷는 즐거움은 다른 어느 여행지에서도 느낄 수 없는 체험이다. 또한 담장과 보도, 상점의 간판, 테라스에 배치된 테이블과 의자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고 수준 높은 디자인으로 보는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메인가로를 따라 배치된 아틀란티스 서점, 올리브 제품 판매점, 와인 농장 등 다양한 전통 상점들과 옛 교통수단이었던 당나귀까지 거리 풍경에 풍성한 스토리가 더해져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이처럼 산토리니는 전통 건축양식의 원형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하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 했다. 최근 인천도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천에도 그리스만큼이나 아름다운 섬이 많이 있다.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인천국제 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관광지로 성장하기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인천도 섬마다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인공경관을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얼마 후에는 세계적인 관광명소까지는 아니어도 제주도에는 견줄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섬 관광지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산토리니 거리풍경(아틀란티스서점과 당나귀)〉